

“추상적인 캐릭터 난감...변성현 감독 믿었죠”

‘굿뉴스’ 설경구, 납치된 비행기 착륙 작전 펼치는 해결사역

“이렇게 추상적인 캐릭터는 처음 봐야봐서, 기립 데도 없고 난감했어요. 겉으로 내색은 못 하고, ‘이게 맞아?’ 의심하면서 찍은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 공개된 영화 ‘굿뉴스’에서 설경구는 낯선 캐릭터에 촬영 초반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가 맡은 ‘아무개’ 역할은 이름도 출신도 알려지지 않은 정체불명의 해결사였다.

지난 20일 만난 설경구는 “그래도 변성현 감독의 머리에 영화의 전체 그림에 대한 설계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믿고 간 것 같다”고 떠올렸다. ‘굿뉴스’는 비행기 납치범들을 회유

해 착륙을 유도하고,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그린 블랙 코미디다.

설경구가 연기한 아무개는 공식 직함 없이 국가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인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몰법 공작으로 권력자의 비위를 맞춘다. 엄중한 회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공색한 옷차림과 가벼운 말투로 이질적인 느낌을 주지만, 설경구의 연기는 ‘오히려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다’는 현실감을 더한다.

설경구가 변성현 감독과 작품을 함께한 것은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배우 설경구

〈넷플릭스 제공〉

(2017, ‘김메이커’(2022), ‘길복순’(2023)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설경구는 변 감독에 대해 “제가 확실히 믿는 감독”이라며 “말도 안되는 걸 실제처럼 보여주는 게 영화라는 걸 알려줬고, 저의 고지식했던 시야를 확 넓혀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중앙정보부장 박상현 역을 맡은 배

우 류승범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하는 배우”라고 한 마디로 평했다.

설경구는 “류승범은 옛날과 행동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왠지 품이 태평양 같이 넓은 사람이 돼 있어 깜짝 놀랐다”고 칭찬했다.

이어 “항상 웃고, 전과 다른 류승범을 보는 게 놀라운 경험이었다”며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자유로움을 본 것 같다”고 했다.

설경구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다”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지만, 진실을 따지기도 하는 정보 없이 즐기신 뒤에 실제 사건을 찾아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연합뉴스

‘어쩔수가없다’ 박찬욱 감독 스페인 시체스영화제 감독상 수상

박찬욱 감독이 영화 ‘어쩔수가없다’로 제58회 시체스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다고 배급사 CJ ENM이 20일 밝혔다.

시체스영화제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장르 영화제로, 판타지, 공포 등 장르물의 가치를 조명한다.

벨기에 브뤼셀판타스틱영화제, 포르투갈 판타스포르토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장르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힌다.

박찬욱 감독은 그동안 여러 작품으로 시체스영화제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다.

‘올드보이’(2004·작품상)를 시작으



박찬욱 감독

〈CJENM 제공〉

로 ‘쓰리, 몬스터’(2004·FX작업상), ‘싸이보그지만 괜찮아’(2007·작본상), ‘아가씨’(2017·관객상) 등으로 이 영화제와 인연을 맺었다.

‘어쩔수가없다’는 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 한국 영화로는 13년 만에 경쟁 부문에 초청됐고,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는 국제 관객상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최연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9월 2일 천문역원 (062)673-2427
	취띠: 마음을 비우면 새기운이 들어온다. 36년생 배려와 인내가 장기적으로 복이 된다. 48년생 마음의 불안, 욕심 다스릴 필요가 있다. 60년생 정신을 전하려고 말보다 글이 효과적이다. 72년생 무리하지 말고 일찍 귀가하면 길하다. 84년생 먼저 손 내밀어야 인연이 이어진다. 96년생 결만 요란하고 실속없는 일 은피하라. 08년생 평범함이 오늘의 무기, 과함은 금물이겠다!	행운의 수: 26 행운의 색: 파란색
	소띠: 잘못된 편들이나 감정 개입은 손해로 이어진다. 37년생 손실은 줄여두고 이익을 지키는 현명한 날이다. 49년생 마음속 응어리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61년생 감정적 판단보다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73년생 얽힌 인연은 과감히 끊어야 편안하다. 85년생 기다림 끝에 도착한 안정의 시간이겠다. 97년생 시끄러움이 지나면 평화가 온다. 09년생 낙천적이면 몸과 마음이 안정된다.	행운의 수: 38 행운의 색: 보라색
	호랑이띠: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편안하다. 38년생 마음가짐이 전체 운의 흐름을 바꾼다. 50년생 불필요한 걱정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라. 62년생 감각이 살아있고 귀가 열리는 날이다. 74년생 원점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면 유리하다. 86년생 꼼꼼히 확인하고 기초부터 다지라. 98년생 혼자보다 함께할 때 결과가 있겠다. 10년생 가족 간 갈등은 솔직함이 해답이다.	행운의 수: 01 행운의 색: 주황색
	토끼띠: 바른길로 돌아서면 기회가 따르기 마련이다. 39년생 태도가 불분명하면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51년생 감정은 절반만 드러내라. 63년생 걸 보다 속이 더 진한 날이다. 75년생 좋은 인연과 기쁜 일이 함께할 가능성이 있는 날이다. 87년생 열정을 나눌 대상이 있다면 행복한 하루이다. 99년생 마음의 불안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풀린다. 11년생 확신이 없다면 잠시 멈추는 것도 방법이다. 도전은 하되 조급함은 금물이다.	행운의 수: 02 행운의 색: 보라색
	용띠: 스스로 기회를 만들면 성과가 따른다. 40년생 물살이 빠르니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 52년생 금전보다 명예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64년생 계획이 지연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76년생 가족간의 소통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88년생 고집보다 유연함이 복을 부른다. 00년생 비판보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12년생 주변 이타심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자.	행운의 수: 24 행운의 색: 다홍색
	뱀띠: 마음이 맑으면 복이 저절로 온다. 41년생 근거 없는 소문엔 대응하지 말고 침착을 유지하라. 53년생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내 것을 지켜라. 65년생 상황을 무겁게 보지 말고 가볍게 흘려보내라. 77년생 말보다 마음, 서두름보다 진심, 차분한 하루가 복을 부른다. 89년생 길 걸이 많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01년생 감정 대립 주의. 시기 질투는 흘러보내라.	행운의 수: 19 행운의 색: 연녹색
	말띠: 넓게 보고 여유를 가지면 복이 열린다. 42년생 자존심은 중요하나 고집은 손해이다. 54년생 심리적 압박감이 크면 기운이 떨어진다. 66년생 가까이 가면 멀어지고, 멀리하면 다가온다. 78년생 무리한 욕심보다 모두가 납득할 선에서 마무리하라. 90년생 먼저 움직이지 말고 흐름을 기다려라. 02년생 튀지 말고 은은한 균형이 포인트다.	행운의 수: 78 행운의 색: 노란색
	양띠: 좋은 결과를 향한 큰 물결이 밀려온다. 43년생 과신하지 말고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라. 55년생 욕심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67년생 욕심을 줄이면 더 멀리 간다. 79년생 목욕하 나가는 자제가 오늘의 미덕이다. 91년생 동료와의 협력이 큰힘이 되어준다. 03년생 얻는 것이 많으나 시선은 굽지 못하겠다.	행운의 수: 02 행운의 색: 흰색
	원숭이띠: 밝은 기운이 회복되며 일도 순조롭다. 44년생 감정 대립은 피하고 조화를 택하라. 56년생 싸움보다 화해, 경쟁보다 조화, 작은 양보가 큰 평화를 만든다. 68년생 중용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 80년생 과유불급, 변화의 시작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92년생 믿음직한 사람을 곁에 두면 든든한 하루이다. 04년생 진심이 담긴 행동은 결국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행운의 수: 17 행운의 색: 파란색
	닭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라. 45년생 뜻밖의 일로 놀랄 수 있으니 조심하라. 57년생 경솔한 판단은 손해를 부른다. 69년생 진심 어린 대처가 필요한 날이다. 81년생 마음의 충실을 잃지 말고 한결 갈아야 기준 안에서 지키는 태도가 성공으로 이어진다. 93년생 고한 행동보다 자연스러움이 복이다. 05년생 가식은 해롭고 솔직함이 복을 부른다.	행운의 수: 28 행운의 색: 주황색
	개띠: 어두운 자리보다 밝은 곳으로 향하라. 46년생 화합과 절제가 복을 부른다. 58년생 겉과 속의 조화를 이루면 금전운도 상승한다. 70년생 무거운 입, 신중한 말이 행운의 열쇠이다. 82년생 침착함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한다. 94년생 주변 변화가 크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06년생 착각이 오해를 만들게 되는 날이다.	행운의 수: 04 행운의 색: 황금색
	돼지띠: 욕심이 커질수록 현실 부담도 커진다. 35년생 조화와 안정을 우선시하라. 47년생 무난한 하루 속에 나태함을 주의하라. 59년생 예기치 않은 일도 결국 잘 마무리 될 것이다. 71년생 가능성 높은 일에 집중하면 성취한다. 83년생 장점을 살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라. 95년생 상식선의 경계는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되어준다. 07년생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피로가 쌓이기 마련이다.	행운의 수: 49 행운의 색: 민트색

 광주교통방송 FM 97.3MHz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 수신자부담 무료 교통재보전화 080-333-8000
●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 (07:00~08:53) 프로듀서: 정희준 진행자: 노희설 작가: 박지영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광주교통방송의 아침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재난과 교통 위주의 정확하고 생도감 있는 출근길을 책임집니다.	남도매거진 (16:05~16:55) 프로듀서: 이진아 진행자: 장원나 작가: 김시영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이슈와 정보, 인물, 문화를 다양하게 다루는 지역밀착형 종합정보 프로그램. 남도가 빠지면 섭하지라~	
tbn 차차차 (14:05~15:53) 프로듀서: 권유경 진행자: 윤지현 작가: 정안숙 즐거움전은 이제 그만~ 오후의 나른함을 타파하는 시간! 충겨운 트로트 노래와 신나는 코너로 즐거운 길벗이 되어드립니다.	달리는 라디오 (18:05~19:53) 프로듀서: 김미경 진행자: 최용규 작가: 한효정 복잡한 퇴근길의 편안한 친구 같은 방송! 광주교통방송의 저녁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더 안전하고 더 신속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KCTV 광주방송 KCTV 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제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 이번 주 주요프로그램 ◆
프로그램 안내		KCTV의회중계 < 광주광역시의회 / 북구의회 >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회 제305회 광주 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의회를 생방송으로 중계한다. 시정질의회 _ 10월 20일(월)~22일 / 구정질의회 _ 10월 23일~24일 방송 : 10월 20일(월)~10월 24일(금) 10:00~12:00, 14:00~16:00
KCTV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주요 소식을, 동네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일리 뉴스.		네트워크발굴 서울광광 < 신형 소문리 카페와 울산박물관 편 > 4곳의 케이블TV 방송국이 공동제작하는 현지인 진정한 지역 맛집 프로그램. 이번 화는 산속의 숨마채럼 카페와 울산의 과거 역사를 간직한 울산박물관을 찾아간다. 방송 : 10월 21일(화)~10월 24일(금) 20:20~20:50
포토힐링타임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앨범.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문 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SO네트워크 < 오 정해보고 강원 춘천 편 > 방송인 오정해와 떠나는 지역 케이블방송사가 공동제작하는 '현' 현지 탐방 기행프로그램. 이번에는 호반의 도시 춘천의 맛과 매력을 만난다. 방송 : 10월 22일(수)~10월 24일(금) 13:00~13:50
출발V시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만든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뜻뜻하고 생기 넘치는 영상제작물을 만나본다.		